

변화 선도하는 열린의회 실현

향후 중점 두어야 할 의제 '일상의 회복'

고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는 올해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유례없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침체된 군산경제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 지역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

시의회는 내실 있는 의회 운영과 불편부담한 조례가 없는 꼼꼼히 살피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시민에게 '소통하고 찾아와', 변화를 선도하는 열린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군산시의회 의원 모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태 극복과 시민의 삶을 돌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시정 현안을 면밀하게 점검함은 물론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건담화와 현장방문, 의원총회,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김영일 부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금 우리 앞에는 많은 어려움과 과제들이 산재해 있으며 그중에서도 의회 차원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의제는 '일상의 회복'"이라며 "2022년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일상회복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등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회 본회의장

▲2021년 의정활동 실적

군산시의회는 올 한해 동안 106일간의 의사일정 동안 8번의 임시회와 두 번의 정례회를 개최했으며, 조례안 134건, 동의안 55건, 예산안 11건, 기타 42건 등 총 242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했다.

이 중에서 특히 코로나19 극복과 시민 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각종 안건 처리는 물론 시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의원들의 50건을 처리하면서 민의의 대변자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또한 시정에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해결을 촉구하는 시정질문 5건, 5분 자유발언 69건, 건의문·결의문 11건, 성명서 3건 등 의회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시민 생활 안정은 물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이와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문제점 309건을 지적했으며 이 가운데 시정조치 96건, 대책마련 206건, 향후조치 95건, 기타 2건으로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민생생기 행보 '논길'

군산시의회는 코로나19 극복과 시민의 삶을 돌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지

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자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군산시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군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군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군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등 시민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각종 안건 처리에 매진했다.

또한 군산지역의 경제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해 경제여건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산업성장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산업 및 고용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등 연차해결을 촉구하고 새만금호수질 개선 문제 해결을 위해 새만금수질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할 것과 종합대책 운영 결과에 따라 해수유동을 즉시 이행할 것을 건의함은 물론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어촌도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농어업인도 포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선별진료소에 방문해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의사 일정을 단축 조정하고 지역 내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예방수칙 홍보 및 캠페인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신속한 정보 제공과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홈페이지,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를 통해 의정활동 내용을 게시하는 등 시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도록 노력했다.

앞으로도 28명의 시의원들은 남은 임기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시민과 함께 바라보고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강화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의정활동을 펼쳐도록 매진할 것이다.

특히 시의회는 지역주민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새만금개발청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새만금 정책사업 철회 촉구 및 새만금등서도로 관할신청 철회 촉구 성명서, 새만금개발청 앞 탈레이 1인 피켓시위, 군장자단 인입철도 공사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해 민원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인 피켓시위 등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 등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쳤다.

또 긴급 추경예산을 심의·의결해 방역지원 및 지역경기 회복에 정책역량을 집중함은 물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



명진 군산공장 방문

마 도움을 드리거나 군산형 재난지원금 관제지원과 모든 시의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 및 의원 연구비 지원 반납 등 의회 본연의 역할에 발 빠르게 움직였다.

이와 함께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선별진료소에 방문해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의사 일정을 단축 조정하고 지역 내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예방수칙 홍보 및 캠페인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신속한 정보 제공과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홈페이지,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를 통해 의정활동 내용을 게시하는 등 시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도록 노력했다.

앞으로도 28명의 시의원들은 남은 임기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시민과 함께 바라보고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강화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의정활동을 펼쳐도록 매진할 것이다.

▲공부하는 의회상 정립

군산시의회는 올 한해 시의원의 정책개발과 입법활동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고 시정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연차 송영선 사상과 업적 유공유성 복원과 활용방안, 군산시 관광진흥정책, 생선 이영춘 박사 등 4개 연구단체를 구성해 포럼, 토론회, 정책연구 등을 통해 군산의 유무형 자산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활용대책 등 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도시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는 관광활성화 방안 모색에 노력했다.

또한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연찬회를 통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회를 위한 전문가 교육과 간담회는 물론 현장에 답이 있다 라는 자세로 발로 찾아가는 의정활동을 통해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앞으로도 군산시가 건전재정 및 재정효율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통해 끊임없이 공부하는 의회는 물론 신중한 정책연구·개발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군산시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2년도 군산시의회 운영방향

2022년은 코로나19 극복을 통한 시민들의 일상회복과 지역경제 회복이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군산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이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날을 앞당기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먼저 감염병과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한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 감염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우리 상황에 맞는 능동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등 시민 모두가 하루빨리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재생에너지와 미래를 중심으로 한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에 더욱 힘쓰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및 '군산 상생형일자리'를 통한 전기차클러스터 조성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지원 확대를 위해 군산사랑 상품권 지속 발행과 지역 소상공인의 비대면 시장 진출을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배달의 명수 시스템 개선 지원은 물론 맞춤형 임대사업의 상권 자생력 강화사업과 소상공인 특별보증 지원사업, 카드수수료 지원, 스마트 시범상가 지원사업 등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집트는 도움을 줄 예정이다.

또 다양한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과 신규 관광콘텐츠 발굴로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조성은 물론 지역 상생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미래전략사업 육성과 지역경제 회복,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역점을 두고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간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시행하는 지방자치법에 맞춰 발 빠르게 움직여 군산의 특성에 맞는 의회의 조직 구성과 인력배치 및 활용, 효과적인 입법지원 체계구축을 위한 조례·규칙, 조직개편 등의 제반사항을 사전에 빈틈없이 정비해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공항 활성화 촉구

조례안 134건 등 총 242건 안건 심의·처리
고용위기 지역 지정 연장·새만금호 수질개선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농어업인 포함 등 촉구
의원 연구단체 구성,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
내년, 코로나19 극복 통한 시민 일상회복 중점
군산형 일자리 통한 전기차클러스터 조성 진행

▶▶ 시민들께 전하는 말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삶의 질 향상·행복 최우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는 어느 때보다도 다사다난한 일들을 겪으며 바쁘게 달려 왔지만 시민과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는 지혜와 인내를 배웠을 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의 배려와 협조로 코로나19로 인한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었고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지런히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에도 코로나19 위기 앞에 시민의 안전과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군산의 미래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온 역량을 집중하고 시민 모두가 감동하는 의정활동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민의의 정당인 의회의 본분에 충실해 항상 시민의 곁에서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시민의 비탄이 무엇인지 시민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해 이를 적극적으로 의정에 반영해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시민 여러분과 힘을 모아 도시의 상체를 회복하고 다시금 활기를 불어넣는데 전력을 다함은 물론 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하루빨리 일상의 행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시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